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81호

I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
온라인 개최

II 누에환 등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에 박차

III 수출 검역 단지 관리 체계 표준화로
민원 편의 도모

IV 국산 딸기 검역 요건 완화로
호주 시장 수출 확대 기대



농수산물 수출 Zoom In 81호

2020. 12. 31(목)

‘20.11.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89.2억\$

부 류 별

신선	가공	수산
  2.7% 1,265.4백만불	  7.8% 5,577.1백만불	  8.4% 2,077.4백만불
 인삼류, 김치, 닭고기  파프리카, 배, 딸기	 껌, 라면, 쌀가공식품  음료, 조제분유, 맥주	 김, 바지락, 오징어  참치, 굴, 전복

국 가 별

* 쌀 무상원조 실적('19(2.0백만불), '20(5.5))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미국 1,379백만불(29.8%)		 김(24%), 음료(6%)  굴(△22%), 배(△12%)
  홍콩 388백만불(3.3%)		 라면(37%), 굴(6%)  인삼류(△15%), 설탕(△7%)
  ASEAN 1,689백만불(3.1%)	▶ 싱가포르 대형마트 연계 과실류 판촉(~'21.1.31) ▶ 인니 대형마트 연계 떡볶이 등 판촉(~'21.1.31)	 라면(15%), 닭고기(12%)  참치(△15%), 음료(△7%)
  EU 508백만불(0.1%)		 라면(54%), 참치(8%)  새송이버섯(△9%), 카다마치(△7%)
 라면(22%), 인삼류(15%)  조제분유(△21%), 김(△14%)	▶ 대형유통매장 연계 생우유 판촉(~'21.1.28)	  중국 1,433백만불(△2.7%) 
 라면(465), 김치(28%)  참치(△11%), 파프리카(△2%)	▶ 대형마트 연계 한국 농식품 종합 판촉(~'21.1.17)	  일본 1,820백만불(△8.2%)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 1. 1 ~ 11.30



“ 닭고기 ”

- ◇ ASF로 인한 돼지고기 대체 수요와 닭고기 소비 성수기(건기) 및 삼계탕 인기로 수출 확대

68,409천불(23.0%)

- ▶ 주요 수출국 : 베트남(47,012천불, 12.7% ↑), 홍콩(7,312, 80.3 ↑), 미국(5,559, 36.5 ↑), 일본(4,223, 39.8 ↑)

“ 라면 ”

- ◇ 코로나19와 한류 영향으로 인한 한국 라면 인지도 상승으로 역대 최고 수출 금액 기록 달성



- ▶ 주요 수출국 : 중국(138,561천불, 22.0% ↑), 미국(72,838, 49.4 ↑), 일본(44,978, 46.0 ↑), 태국(24,658, 38.9 ↑), 필리핀(22,373, 67.0 ↑)

549,723천불(28.4%)



“ 과자류 ”

- ◇ 글루텐프리 쌀과자 인기 증가, 수입 과자류 선호도 상승 등으로 과자류 시장 확대

470,960천불(16.8%)

- ▶ 주요 수출국 : 미국(118,497천불, 37.8% ↑), 일본(82,510, 0.1 ↑), 중국(76,394, 30.6 ↑), 대만(30,026, 57.9 ↑), 홍콩(26,718, 46.8 ↑)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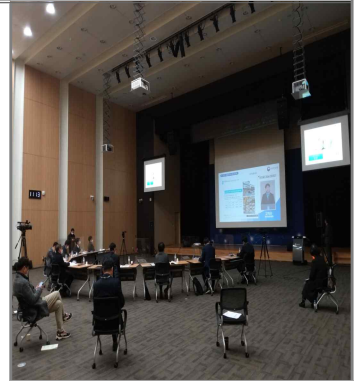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 온라인 개최

농촌진흥청은 12월 2일 '2020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 한 해 개발한 우수한 수출 농업 기술과 농식품 수출 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이 행사는 식량, 채소, 화훼 등 각 품목별 수출 경영체, 수출 유관기관, 농업기술원, 시군센터 관계관 등이 농촌진흥청 유튜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먼저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는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등 분야별로 수출 관련 우수 성과를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하였다.

이어 수출 농업 우수 사례 경진 대회는 수출 경영체의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선 농산물(5개), 가공 식품(3개) 총 8개 분야 경영체가 발표했다. 발표는 사전에 제작한 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당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신선 농산물 부문은 천안배원에 농업협동조합, 가공 식품 부문은 두원농업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농식품 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6.8% 가량 증가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식품 수출우수사례 경진대회



성과확산대회 참석자

농촌진흥청, 누에한 등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에 박차

농촌진흥청은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를 꾀하고, 양잠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9일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 온라인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개최했다.

학술 토론회는 ◇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 및 과제 ◇ 기능성 양잠산물 소재 개발 현황 및 계획 ◇ 양잠산물 수출 진흥 대책 등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누에한, 오디즙 등 양잠산물을 미국에 시범 수출한 업체가 참석해 수출 사례를 발표했다.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6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양잠산물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정했다. 5월에는 양잠산물 수출 협의체를 구성해 수출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협의회도 2차례 개최했다. 10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에 경남 산청에서 생산한 누에한, 오디 가공품 등을 시범 수출하고,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판촉 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양잠산물의 기능성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과 기능성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기능성 양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수출 검역 단지 관리 체계 표준화로 민원 편의 도모



수출 영상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수출 검역 단지 지정 및 관리 요령」 고시 개정 및 관련 전산 시스템 개선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 검역 단지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수출 단지 지정 운영을 위하여 수출 단지 지정 절차, 신청 및 승인 양식, 승인 번호 부여 방식 등을 표준화하고 선과장 요건 등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혼선을 방지, 수출 재배지 준수 사항을 단순 명확화하였다. 이에 따라 한 개의 수출 단지가 동시에 여러 국가로 수출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검역본부는 추후 국가별 고시 재정비와 수출 단지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민원인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딸기 검역 요건 완화로 호주 시장 수출 확대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딸기 호주 수출이 MB 훈증 소독 요건으로 허용되어 생산지에서 훈증 소독이 어려워 인천 공항으로 이동하여 소독하는 등 생산자 및 수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주측과 적극적인 협상과 연구 용역 과제 수행으로 과학적 근거 제시 등의 오랜 노력으로 한국산 딸기 수출 검역 요건 완화에 양국이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밝혔다.

기존은 호주측의 우려해충인 벚초파리 관리를 위해 MB 훈증 소독 및 딸기모무늬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육안 검사 및 실험실 정밀 검사가 필수였으나, 완화된 검역 요건으로 벚초파리의 관리를 위해서 트랩조사를 실시하여 재배지에 무발생을 증명하거나 벚초파리 유입 방지 시설이 있는 온실에서 재배, 딸기모무늬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육안 검사 실시로 실험실 검사가 면제되는 요건으로 호주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국산 딸기 호주 시장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